

의재와 제자들 예술적 동행...남도 문인화의 유산

광주의재미술관 '...아름다운 동행'전 7월까지 진행
계산 장찬홍·금봉 박행보 등 20명 작품 40여점 출품
제1·2전시실 산수...4전시실 문인화 작품 집중 소개



계산 장찬홍 작 '묵란'

의재 허백련(1891~1977)은 광주 현대화단의 정신적 지주처럼 통하는 인물이다. 국내 남종화의 거장이기 때문이다. 미술사적으로 굵직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공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가령 동구 윤림동은 의재가 머물렀던 주공간이어서 의재교(목교)를 망라해 석야정·오방정기념비, 삼애대원, 문향정, 관풍대, 묘소 등이 즐비하다.

광주의 어머니산으로 빛고을의 정신주 지주였던 무등산 자락에 지역미술의 정신적 지주였던 의재가 깃들여 있는 셈이다. 의재와 광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된다.

그의 미술사적 족적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의 화업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의재미술관을 건립해 올해 25년째를 맞고 있다. 그만큼 의재의 그늘은 광주 현대화단에는 출발지점과 같다. 그래서 매년 그를 기리는 전시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은 올해도 변함없이 '의재와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한 기획전을 3월 개막, 7월 31일까지 미술관 1, 2, 4전시실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가 의미를 갖는데는 스승을 위해 그의 제자들이 대거 출품해서다.

전시는 의재 허백련의 예술정신과 그 계승 과정을 조명하는 자리로,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 남도 문인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손색이 없다.

전통이 현대에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조명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계산 장찬홍을 비롯해 구당 이범재, 금봉 박행보, 매정 이창주, 백양 조정규, 연사 허대득, 옥산 김육진 등 나름대로 미술적 일가를 이룬 20여명의 작가의 서예, 사군자, 산수 등 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그의 제자들 상당수가 고인이 됐기에 오로지 작품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및 남도문인화의 흐름을 추적

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남도 문인화의 흐름을 되짚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는 제1·2전시실에서는 남도의 자연과 정신을 담은 산수 작품을 조망하도록 큐레이팅을 했으며, 제4전시실에서는 전통의 맥을 잇는 문인화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따라서 각 전시실은 의재와 제자들의 예술적 흐름을 공간별로 보여주는데 무게를 뒀다.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를 화폭을 통해 작으나마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했듯 의재는 남종문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남도 화단의 선구적 역할을 한 거장으로, 필묵(筆墨)의 법도와 문기(文氣)의 수양을 함께 강조하며, 시·서·화를 하나의 인문적 흐름으로 이해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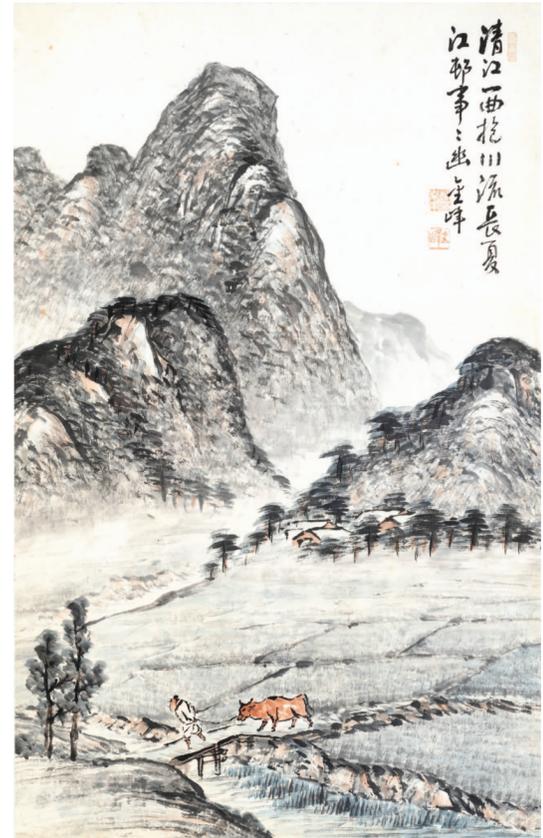
그의 이런 미술적 사유들은 화법의 전수를 초월해 예술가의 태도와 삶 전반에 걸친 가르침으로 이어졌고, 연진회(鍊眞會)로 뜻이 모여 교유와 수련이 함께 이뤄진 장을 구현해냈다. 광주화단에는 그의 마지막 제자이니, 연진회 마지막 수료생이니 하는 말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영향력이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반증이다.

의재미술관 관계자는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틀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재는 필법과 정신적 절제를 강조하면서도 화면의 해석과 표현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 뒀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작품에 담아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남도 문인화는 전통 안에서 서로 다른 길을 드러내게 됐는데, 이런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를 '동행'이라는 말로 풀어 보고자 했다는 전언이다. 그것은 같은 뜻을 나누며 각자의 길을 걸어온 시간의 흐름이라는 점 역시 잊지 않았다.

이번 전시는 의재와 뜻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서예와 사군자, 산수 작업 모두 남종문인화의 전통에 기반하고 이들의 작업이 실제 한자리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더한다. 같은 스승이라고 해서 이들 제자의 화맥이 똑같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화면을 풀어내는 방식과 표현에서는 제자들마다의 생각과 개성을 투영한 화폭을 일궈 일가를 이뤄내고 있어서다.

아울러 서예에서는 단정한 필획으로 품격을 보여



금봉 박행보 작 '농경도'

주고, 산수에서는 남도의 자연과 삶의 경험을 담아 내며, 사군자에서는 절제된 정신을 표현한다. 이런 차이는 스승의 가르침이 각자의 작업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시는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를 하나의 계보에 가두지 않고,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도 문인화라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미술사적 시각을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선옥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의재와 제자들이 함께 한 시간은 남도 문인화의 뜻깊은 유산이다. 그 시간을 되새기며, 그 안에 담긴 생각과 품격을 다시 마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의재와 제자들이 함께 이어 온 예술의 시간을 직접 마주하며, 전통이 오늘날의 삶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해 그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누적 관람객 2만5000명 돌파...차별화 전략 통했다

광주과학관 특별전 '위기의 지구, SOS' 연장 운영
22일까지 캠페인성 전시 대신 기후 새 담론 제시

누적 관람객 2만5000명을 넘어선 국립광주과학관 기후 및 멸종위기 특별전이 오는 22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3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에 따르면 당초 지난 2일까지였던 기후 및 멸종위기 특별전 '위기의 지구, SOS'를 오는 2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누적 관람객 2만5000명을 넘어 서며, 단순한 캠페인성 환경 전시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과학적 근거와 생생한 실물 표본, 그리고 감각적인 예술 작품으로 풀어내며 개막 초기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교, 기관 등 단체 관람이 이어져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는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성적 호소에서 벗어나 지질학적 증거에 기반한 차별화된 연출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인류 활동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핑크리치'와 '플라스틱 암석' 전시는 관람객이 기후 위기의 현실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페플라 스틱 골격 모형과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움직이는 예술 작품(키네틱 아트)을 통해 자원 순환과 공존의 의미도 전달한다.

전시는 국가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습 중심형 전시'로 설계돼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증강현실(AR) 스탬프 체험, 체험 활동지 미션, 기후 행동 다짐 누리소통망(SNS) 참여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재혁 작가와 함께하는 '페이퍼 아트 원데이 클래스'를 통한 특별한 체험교육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 취지에 맞춰 환경·사회·책임 경영(ESG) 실천 노력도 이어졌다. 전국에서 기증받은 '나눔 레고'를 체험 공간에 활용하고, 전시 종료 후 이를 지역 복지시설에 다시 기증하는 방식으로 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무진기연, ㈜도경건설, ㈜그린이앤에스, ㈜커뷰,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업과 기관의 후원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대상 관람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도 앞장섰다.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박은미 선임연구원 "많은 관람객이 보여준 기후 위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전시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며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2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주심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시를 접할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전시를 연장 운영하게 됐다. 남은 전시 기간 동안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지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비엔날레, 서울서 올해 첫 'GB토크' 연다

'보급되는 이미지, 공유되는 노래' 주제...13일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는 2026년 제 16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올해 첫 번째 'GB토크'를 연다.

이번 GB토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제시하는 주제를 미리 공유하고 확장해 보는 공공 프로그램으로, 비엔날레가 무엇을 질문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올해 GB토크의 주제는 '보급되는 이미지, 공유되는 노래'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비디오테이프·카세트테이프·목판화 등이 이미지와 노래,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하고 확산시켰는지에 주목한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은 편집·복제를 거쳐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저장요소는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반복적으로 복제·확산됐으며, 목판화는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제작·공유하는 실천으로 이

어졌다. 이 같은 비공식적 유통과 집단적 창작의 흐름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 문화운동의 대중성을 뒷받침했고, 예술을 통해 억압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지역의 경험을 사회 전체의 변화와 연대로 확장시킨 중요한 배경으로 기능했다.

프로그램은 호추니엔 예술감독의 프로그램 소개로 문을 연다. 이어 한재섭 광주독립영화관장이 '광주·비디오·소문과 이미지의 정치학' 상영 및 토크를 진행하고, 최유준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교수는 '사운드, 미디어, 음악하기'를 통해 1980년대 음악 문화와 매체 환경을 짚는다. 이후에는 최경화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토론, 홍성담 작가와 박기희 큐레이터가 참여하는 대담 '광주시민미술학교', 브라이언 쿠안 우드 큐레이터가 이끄는 질의응답 및 마무리 등 순으로 이어진다. 문의 062-608-4273.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비영리단체 조직역량 강화

시민사회센터, 20일까지 참여 모집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센터장 이기훈)는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조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 '키움'-조직변화와 성장'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비영리단체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 교육이나 일회성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 변화와 실행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는 총 4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3회 이상의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분야는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미션·비전 체계 재정립,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 신규사업 추진 전략 등이며, 비영리조직 운영 전문가가 참여해 단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설계를 지원하고 단체별 100만 원의 실행 사업비도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간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이며 신청서는 이메일(ngocity@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381-1134.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